

중소기업의 도전을 성공으로 연결하는 TIPA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 중소기업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과를 발표한 지 만 6개월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기능조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이하 기정원)이기 때문이다.

예산은 4,189억 원에서 9,045억 원으로 2배가 늘어났고, 인력도 77명에서 100명으로 3분의 1이 증가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커진 것은 중소기업 R&D 통합 전담기관으로서의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아닐까 한다. 작년까지 기정원을 포함한 3개의 기관이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었던 것을 올해 초 기정원으로 통합한 것이 기능조정의 주요내용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R&D전담기관으로 변화

먼저, 새롭게 달라진 역할에 따라 R&D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였다. 1개 본부 3개 부서에서 R&D 업무 조직을 3개 본부 10개 부서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그간 수행해오던 비 R&D업무인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과 컨설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인력과 기능을 이관하였다. 대신 다른 2개 기관에서 R&D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을 새 식구로 받아들였다.

기정원은 설립 이래 처음으로 겪는 대규모 인력 변화에 대응하고자 조직 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팀웍데이(team-work day)와 크로스미팅(cross-meeting) 제도를 신설하여 직원간의 융합을 도모하였으며, 무엇보다 기관장이 직접 이관 직원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여 고충상담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조기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조정본부장

또한 보직,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이관 직원들을 인사상 차별이 없도록 대함으로써 출신과 상관없는 능력주의 관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기존 직원들과 이관 직원들이 새롭게 하나 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공동으로 비전 수립 작업에 동참하였다.

중소기업의 도전과 성공을 돕는 TIPA

두 번째로 착수한 일은 기능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비전 및 경영목표를 재수립하는 작업이었다.

직원 워크숍과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기업의 도전을 성공으로 연결하는 R&D 파트너’라는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였다. 고객인 중소기업의 도전(기술개발)을 성공(경쟁력 강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으로 연결하고자 한다는 기관의 서비스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단순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실현함을 기관의 지향점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수준 향상’,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

‘중소기업형 R&D지원모델 구현’, ‘고객만족 우수등급 획득’이라는 4개의 경영목표를 수립하였다. 4개의 경영목표는 다시 여러 개의 세부과제들과 목표들로 구체화 되어 각 부서의 성과목표로 배분됨으로써 그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끝으로 세 번째 과제는 현재진행형이자 미래진행형이다. 중소기업 R&D 지원기관 통합에 따른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R&D 지원모델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인 중소기업 R&D 사업은 기초기술이나 응용기술 연구개발사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주체이자 동시에 기술의 사용자이므로 개발 기술 자체가 처음부터 실용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또한, 기술개발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되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실제로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 중 46%가 중소기업 R&D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인터넷 포털 시장을 선도하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도 창업 초기에 중소기업 R&D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한편,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비해서 R&D 기획을 비롯한 기술개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창업기업에서 예비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특성에 따라 기술혁신 역량 차이 또한 크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술기획에서 기술사업화에 이르는 기술개발 전주기에 걸친 지원과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정원은 기획재정부의 중소기업 R&D 분야 기능조정을 통해 부여된 “중소기업

R&D 전담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본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